

내년 6·4 지방선거 6개월여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총출항 그물망을 피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다 선거에 사용할 '정치자금'을 만들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입지자들과의 관계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지역업체, 기관·단체 등에는 '책값'으로 내야 할 돈이 상당한 부담이라는 점과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출판기념회 '봇물'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정인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자전적 예세이 '좋은 사람 밝은 교육'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재선 도전에 나선 민형배 광산구청장 역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누구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고, 선거일 전 90일(내년 3월6일)부터 선거일(6월4일)까지는 열 수 없다.

출판기념회의 정치학



정책비전 홍보·정치자금 모금·사전운동 효과 '1석3조' 지방선거 앞두고 '봇물' ... 역기능도 많아 개선대책 시급

박인화 23일 DJ센터·최영호 29일 광주대서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최 청장이 민선 5기를 이끌어온 경험과 향후 구정 비전 등을 담았다.

앞서 광주시장 도전에 뜻을 두고 있는 이영섭 국회의원과 시교육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민형배 광산구청장 역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누구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고, 선거일 전 90일(내년 3월6일)부터 선거일(6월4일)까지는 열 수 없다.

따라서 올해 말과 내년 1~2월 사이에 입지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책비전 홍보 VS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논란'은 입지자들은 사전 등 책을 통해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갖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를 과

시하는 한편 유권자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신인의 경우 출판을 통해 자신의 정책비전이나 구상을 밝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출판기념회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출판기념회가 통상 정치자금 모금의 변형된 창구라는 '역기능'의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책을 팔고 받은 돈은 정치자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 또는 후원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여기에 모금 한도도 없고, 회계보고 의무도 없어 사실상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국회의원 후원금과 달리 배일에 가려져 변칙적인 '선거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입지자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책값은 통상 1만원 안팎이지만 격려금 형식으로 개인당 5~10만원을 내는 게 관례고, 일부는 50만~100만원, 수백만 원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은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100권을 사든 1000권을 사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책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제3기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거나 횡수를 규제하는 등 출판기념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주름 진한 얼굴에 가슴이 뭉클



(53)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인생은 멀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이다. 타인의 화려한 삶에도 그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 자신의 비루한 모습도 남 보기에는 그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생각할수록, 인생이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오묘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이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연극 관람을 했다. 박윤모의 모노 드라마 '아버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출발했으나 가슴 뭉클한 '해피 엔딩'이 안도감을 주는 희극이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하여 200회 이상 공연기록을 세운 '아버지'는 90분 동안 11남매를 키우며 겪은 파란의 가족사를 눈물과 웃음으로 버무려 배우가 들려준다. 자전적 이야기인지, 연기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배우의 열연이 감동적이었던 '아버지'는 아버지의 서사인 동시에 묵묵하게 뒤에서 아버지의 삶을 지탱해 준 어머니의 서사이기도 했다.

우연일까. 상록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황재형 작가(1952~)의 작품 가운데 아버지를 그린 '아버



황재형 작 '존엄의 자리'

지의 자리'와 어머니를 그린 '존엄의 자리'가 있어 연극 '아버지'의 내용과 오버랩 되었다. 세상에 절망한 이들이 모여든 '삶의 막장' 탄광촌에서 광부가 되어 탄광촌의 삶과 풍경을 그려온 작가는 여전히 우리 땅과 이 시대 사람들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작품 '존엄의 자리'(2010년 작)는 삶의 고단함과 신산함, 가족에 대한 노심초사로 일관했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묘사해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준다. 작가는 "온갖 삶의 주름이 얼굴의 주름처럼 앙금으로 남아있으나 존재의 본질은 변함없이 희망을 이야기 한다"고 들려준다. 어머니라는 '존엄의 자리'는 세상에 직접 감람하기 어려운 신이 대신 우리 곁에 보내준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김종두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충청 의석 수 확대 여론몰이의 '꼼수'

지역대결 조장 이익보려는 시도 ... 興野도·興與도 파열음

'충청권 의석수'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등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방적 충청권 의석수 늘리기 운동에 제동을 거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등은 충청 인구와 호남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충청(25명)이 호남(30명)보다 5명이나 적은 것은 명백해 잘못됐으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히 호남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전국 단위 및 동남권 발원 등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새누리당 내 호남 출신 인사들도 일부 충청권 의원들의 선거구 조정 드라이브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 최고위원 등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조정 문제를 지역간 대결 또는 당내대결 구도로 몰아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충청

출신과 호남 출신 인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의석수 확대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19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충청권 의원 회동도 전격 취소됐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국회의원 숫자가 부당하게 돼 있는데 대해 충청도민과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충청권을 무시하고 충청민심을 짓밟은 현 선거제도에 대해 민주당 호남 출신 의원들이 주범이라면 민주당 충청의원들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지금의 지역별 의석수 비율에 대한 생각 ▲과거 공직선거법 개정 시 대전 인구가 광주보다 많음에도 국회의원 6명, 광주 8명으로 결정된 이유 ▲불이익 받는 충청에 대한 공개 사과 여부 ▲의석수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사 여부 등에 대한 공개 질의도 했다.

이에 호남 출신인 새누리당 유수택



무등산 정화활동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소장 안시영)는 20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와 함께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호남권만 갖고 비교하는데 따지고 보면 현재 수도권 인구가 대단히 많다"며 "전국을 흔들어서 선거구를 개편하려면 경북에서 3명, 강원에서 2명을 빼 수도권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보면 이것은 지역 불균형발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라면서 "충청도에 외침이 8개가

뭉개간 것을 비롯해 오창공단과 대덕연구단지, 세종시 등 충청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호남에 비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구 조정 얘기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답답이 가고 순리적인 방법에 의해 개편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인구 논리를 떠나 (더 큰 틀에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인정머리 없는 세상 됐다

한빛 원전 2호기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원전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는 두산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영광 주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한빛 원전 2호기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증기발생기 정비 작업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산중공업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자재를 공급하여 원전 안전성 확보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11월 21일 두산중공업 임직원 일동

